



더불어민주당 이용섭광주시장 후보가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시되자 부인과 함께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가 13일 오후 순천시 조례동 선거사무소에서 6·1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당선 유력시되자 환호하고 있다. /후보 선거사무소



장휘국



장석용

민주, 광역단체장 14곳 '석권' 압도적 승리

6·13 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4곳을 석권, 압승을 거뒀다.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전체 27개 선거구 중 9개 시·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등 야권 후보가 우위를 점하며 민주당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오후 11시 현재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종합하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광주에서는 민주당 이용섭 후보가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고, 전남 역시 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승리를 확정했다.

서울 박원순 후보, 경기 이재명 후보, 부산 오거돈 후보, 인천 박남춘 후보, 대전 허태정 후보, 울산 송철호 후보, 세종 이춘희 후보, 강원 최문순 후보, 충북 이시종 후보, 충남 양승조 후보, 전북 송하진 후보, 경남 김경수 후보, 전북 송하진 후보, 경남 김경수 후보, 전북 송하진 후보, 경남 김경수 후보

광주시장 이용섭·전남지사 김영록 당선
광주교육감 장휘국·전남은 장석용 우위
전남 9개 단체장 야권 기염 '독주' 견제

보 등 12개 시·도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우위를 점했다.

자유한국당은 경북 이철우 후보, 대구 권영진 후보 등 2곳을 얻는데 그쳤다.

제주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날 오후 11시 30분 현재 장휘국 후보가 이정진 후보와 접전 끝에 당선 유력하며, 전남도교육감은 장석용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야권 후보들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광주 5개 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승리했다. 동구에서는 임택 후보가, 서구 서대석 후보, 남구 김병내 후보, 북구 문인 후보, 광산구는 김삼호 후보가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다.

반면,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 최대 9곳에서 야권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앞서는 기염을 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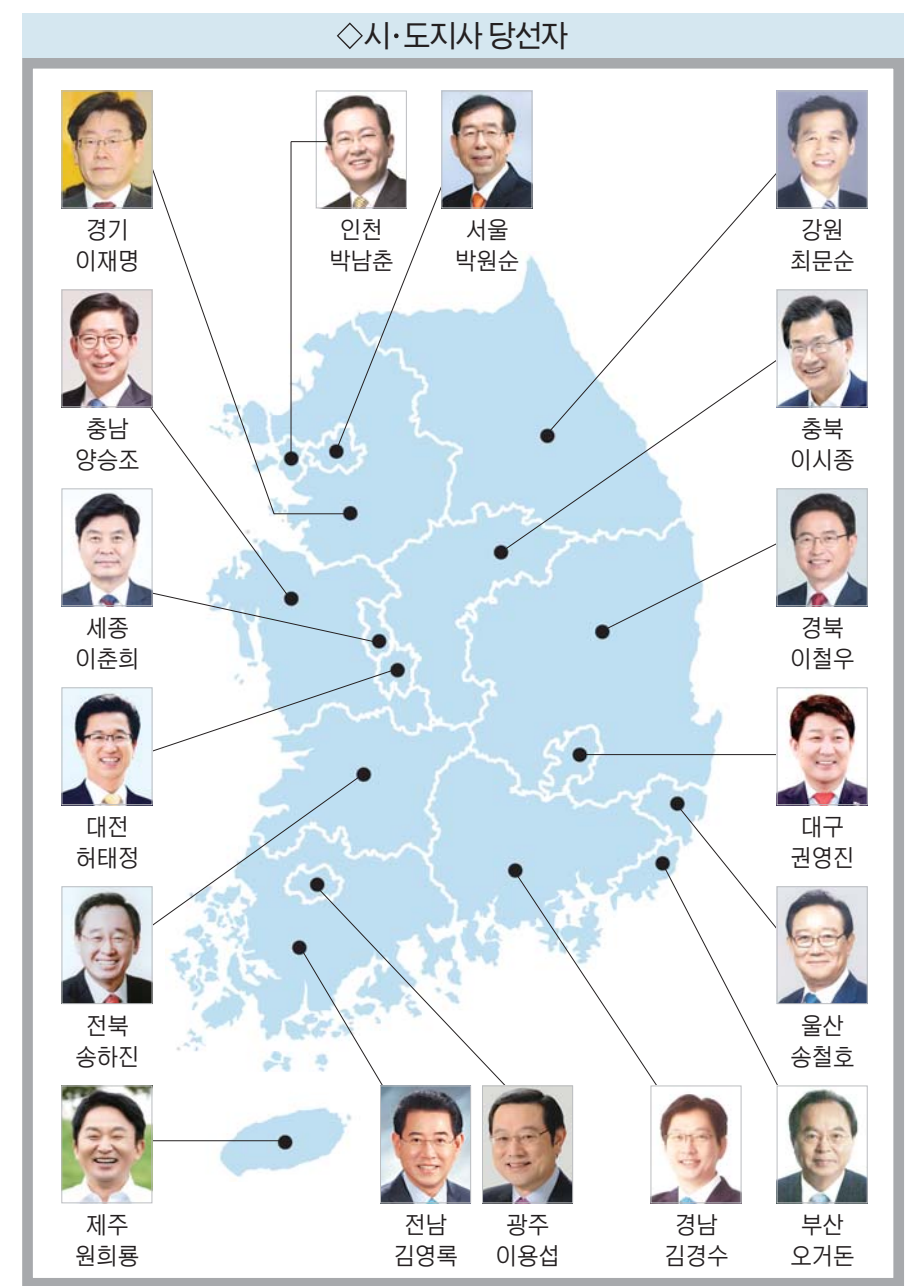
최대 격전지였던 목포에서는 평화당 박홍률 후보가 민주당 김종식 후보에 앞서고 있고, 해남은 평화당 명현관 후

보가 민주당 이길은 후보에 앞섰다. 고흥에서는 역시 평화당 송귀근 후보가 민주당 공영민 후보를 사실상 제쳤고, 함평도 평화당 이윤형 후보가 민주당 김성모 후보보다 우위를 보이며 당선 가능성을 높였다.

광양에서는 무소속 정현복 후보가 민주당 김재무 후보와의 리턴매치에서 승기를 잡아 재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 신안에서도 무소속 박우량 후보가 역시 무소속인 고길호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며 세 번째 군수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장성도 무소속 유두석 후보가 민주당 윤시석 후보에 앞서 재신임을 받았고, 장흥에서는 무소속 정중순 후보가 민주당 박병동 후보에 우위를 점했다. 여수 역시 무소속 권오봉 후보가 민주당 권세도 후보와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다.

/정근산 기자



국회의원 재선거, 송갑석·서삼석 당선

송 “미래세대의 희망 키우는 정치”
서 “지역발전 단체장과 소통·협력”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광주·전남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서는 송갑석 후보가,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는 서삼석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광주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녹색돌풍’에 밀려 광주 8개 지역구에서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텃밭정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송 당선자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를 완성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광주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 주겠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바쳤던 열정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켜 내고 광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며, 미래세대의 희망을 키우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출신인 서삼석 당선자도 박서무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며 정치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1995년 전남도의회에 당선후 재선에 성공한 그는 2002년 무안 군수에 도전해 3선을 하며 정치기반을 다졌다.



송갑석



서삼석

서 당선자는 “농어촌 주민들의 권리를 반드시 찾겠다”며 “무안공항 활성화와 농어촌 발전과 관련한 입법화, 농어촌·섬사민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확

보,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단체장과 최우선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기철 기자

이용섭 당선자 승리배경
김영록 “좋은 일자리 총력”
시·도지사, 교육감, 국회의원 당선소감
6·13지방선거 투표율 60.2%
화보 “소중한 한표 행사하러 왔어요”

- ▶2면
- ▶3면
- ▶4면
- ▶5면
- ▶7면






방향을 바꿀 땐 **깜박여 주세요!**

방향지시등 켜기는 안전을 위한 의무입니다
방향지시등 점등만으로 난폭, 보복운전 예방이 가능합니다.

방향지시등은 진로변경 시 반드시 켜야 합니다
일반도로 30m 전, 고속도로 100m 전 작동해야 합니다.

좌·우회전 시 신호대기 중에도 켜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부과(승용차 기준)

